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 일원에서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가 열린다. 사진은 관광객들이 코끼리마늘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 모습. 〈강진군 제공〉

"보랏빛 수채화"…강진 '코끼리마늘꽃 3 Days' 열린다

12-14일 사흘간 작천면 부흥마을 일원
포토존·꽃바구니 만들기 등 행사 풍성
음식 장터·농특산물 판매…지역 상생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동화 같은 풍경이 강진에서 펼쳐진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장관을 이루는 작천면 부흥마을 일원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꽃구경을 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동체의 따뜻한 정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탐스러운 코끼리마늘꽃 군락지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글동글하고 매혹적인 보랏빛 꽃망울들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깊은 힐링을 선사하며, 여기에 샛노란 해바라기와 버들마편초, 나비바늘꽃 등 다채로운 여름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초여름 수채화를 완성한다.

군락지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일명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 특산물을 듬뿍 넣은 '갈릭피자 만들기'는 어린이들의 입맛과 호기심을 동시에 사로잡을 예정이며, 코끼리마늘꽃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는 자연의 향기와 친환경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중앙광장에는 시원한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돼 이른 무더위를 잊게 해줄 특별한 쉼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방문객들이 축제의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밖에 축제의 묘미로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닭개장과 시원한 냉콩국수 등 지역 특화 음식이 방문객들의 미각을 돋우고, 옥수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마을 장터도 운영된다.

군은 부흥마을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된 고품질 코끼리마늘, 카무트, 팥 등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작천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는 매년 이맘때면 보랏빛 물결이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강진의 숨은 명소"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부흥마을을 방문해 꽃길을 거닐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잊지 못할 초여름의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지원 호응

3-12세 아동 대상 안심 보호
평일·주말 시간당 1천원 비용

영광군이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가 부모들의 든든한 육아 지원군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광청년육아나눔터 3층에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를 개관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돌봄터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병원 진료, 경조사 참석 등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틈새 돌봄 공간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3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폭넓게 열려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천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돌봄터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숙제와 놀이 지도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아동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공예, 가베, 쿠킹 등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매주 1회(월 4회) 운영해 이용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사진〉

이밖에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061-353-88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긴급일시돌봄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안전 울타리"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비금도 샴막 예술축제' 개최

오는 13일 이세돌바둑박물관 일원
프랑스 포경선 표류 175주년 기념

신안군은 9일 "비금도 이세돌바둑박물관 일원에서 오는 13일 '2026 신안 비금도 샴막(Cham Mak) 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1851년 비금도에 표류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 선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각각 샴페인과 막걸리를 나누며 따뜻한 우정을 다진 지 1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당시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개막 퍼포먼스와 극단 갯돌의 창작 공연 '그림 같은 비금도 만찬'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태평무, 클래식, 프랑스 샹송 등 동서양 예술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이색적인 체험 행사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명인이 빚은 잔으로 즐기는 막걸리와 샴페인 시음을 비롯해 두 술을 이색적으로 조합한 '막테일' 시음 코너, 19세기 복식을 입어볼 수 있는 코스튬 포토존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축제의 대미는 비금도의 무형유산인 '뜀뛰기 강강술래'가 장식하며, 유럽 귀빈과 주민이 하나 돼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군무를 선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예술의 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해양경찰정비창 지역경제 활력소 '톡톡'

계약·위탁 절반 지역 업체 수주

목포 서남권에 새롭게 둥지를 튼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 후 지역 경제에 든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일 해양경찰정비창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 계약 및 위탁 용역 25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3건을 전남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수주 계약 규모만 약 58억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총규모는 약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창은 출범 전부터 목포 등 인근 지역의 우수 협력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납품과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며 지역 조선·해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정비창과 협력 중인 A업체 대표는 "정비창 출범 이후 업무량이 늘면서 월 매출이 5천만원(5%)가량 상승했다"며 "초기 단계를 지나 향후 협력 분야가 더욱 확대되면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해양경찰정비창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이앙기 '왕우렁이' 방제 총력

각 읍·면 약제·모판 긴급 지원

해남군은 본격적인 이앙기를 맞아 어린모를 갉아먹는 왕우렁이 방제 약제와 예비 모판을 지원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예방 약제를 각 읍·면에 비치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대체 예비 모판도 발 빠르게 공급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있다.

왕우렁이 농법은 화학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논에 투입해 잡초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벼 재배법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렁이가 폐사하지 않고 겨울을 넘겨 이듬해 이앙한 어린모를 무차별적으로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겨울철 논 깊이갈이로 월동 개체를 집중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앙 전 입수구 차단망 설치 및 논바닥 균평 작업, 생육 중기(7월 상순) 중간 물떼기, 수확 후 논 말리기 등 촘촘하고 체계적인 연중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한국 춘란 재배 교육' 첫 개설

오는 18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함평군이 한국 춘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6주간 함평난문화센터에서 '2026년 한국 춘란 재배 및 유통 활성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축적해 온 함평군의 난(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춘란 기초 상식을 시작으로 생리·생육 환경의 이해, 분갈이 및 용토 활용, 관수와 비료 관리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초보자도 쉽게 전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7월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군청 산림공원과 생태공원팀(061-320-286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암군, 교육발전특구 연계 '농생명 인재' 키운다

영암서울농장서 1박2일 체험
4-6학년 25명 19일까지 모집

영암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융합형 농생명 인재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생명산업 체험 프로그램인 '2026 YES 팜!(Yeongam Edu Seoul Farm) 영암을 배우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영암서울농장 및 지역 체험처 일원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멜론 샐러드 도시락, 무화과 쿠키, 자연 치즈 만들기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개최된 '2025 농생명산업체험' 현장 참가 학생들 기념사진 촬영 모습. 〈영암군 제공〉

모집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5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9일까지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나동호 기자